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8 Summer Vol.53

변화  
주도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 Theme+Talk

06 테마로 세플러 보기  
세플러 성장 모멘텀 II 변화 주도



## Schaeffler+ People

26 가족사진촬영기  
대양암처럼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 Life + Culture

40 세플러 로드  
세플러 그룹 AP(Asia-Pacific) 지역본부가 있는 Singapore  
밤낮으로 즐거운 핫플레이스를 만나다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8 Summer Vol.53

세플러원은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발행일 2018년 7월 16일(통권 제53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 311. 3019  
 기획·디자인 에이플랜  
 (TEL) 070. 7570. 0605  
 출력·인쇄 NOVA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Theme + Talk



06



10

06 테마로 세플러 보기  
 세플러 성장 모멘텀 II '변화 주도'

10 테마 칼럼 I  
 신뢰와 열정이 만들어 내는 변화

12 테마로 재미 읽기  
 변화 앞에서 부화하거나 상하거나



12



## Schaeffler + People



### 16 Show me the 팀웍

세플러의 기술력, 우리가 책임진다  
- 테크놀로지 전용개발팀

### 20 같이의 가치

"먹고 싶은 밥, 건강한 밥, 맛있는 밥 밥심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 전주공장 구내식당 김지호 영양사

### 22 포토 에세이

우연히 만난 여름풍경

### 24 스페셜 에세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26 가족사진촬영기

대왕암처럼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 남부지사 직남영업 정우진 대리 가족

### 30 식사를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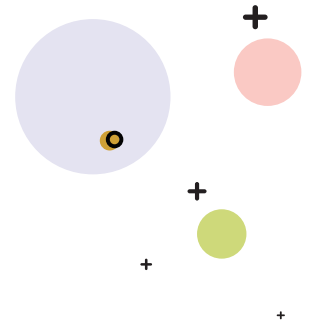
오토모티브 사업기획 서형진 대리, 회계 신현아 대리  
NPM 이승민 대리, 중부지사 직남영업 오한울 대리  
정통 뉴욕 스타일 PIZZA Paulie's

### 32 Power 세플러

10·20·30·40년 장기근속자 릴레이 인터뷰

### 36 리더의 책장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김연학 이사가 추천하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지혜 ❶ <사원의 마음가짐>



## Life + Culture

### 40 세플러 로드

세플러 그룹 AP(Asia-Pacific) 지역본부가 있는 Singapore  
밤낮으로 즐거운 핫플레이스를 만나다

### 44 행복한 직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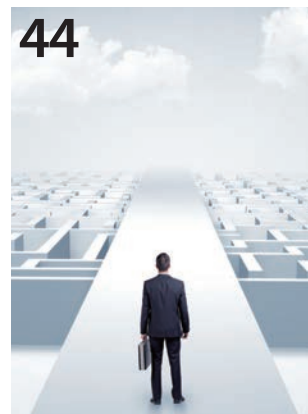
직장인 스트레스 사용설명서

### 48 문화의 숲

2018 썸머 페스티벌 몽땅

### 52 Schaeffler FOCUS

### 55 Schaeffler Hotline



# Drive the change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F(다보스 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생산 및 제조 분야는 160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무관리직 및 관리직종은 47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혁명과 역사적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우리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고, 그 대비책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에렉투스(곧게 선 사람), 호모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사람)로 진화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진화한 것이 아니라 500만 년간 끝없는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기후변화, 식량 문제, 타 종족의 침입 등 급변하는 외부적 환경에 발 빠르게 변화한 개체만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인 것입니다.



# ‘변화 주도’

세플러 성장 모멘텀 II

## CHANGWON



창원공장은 세플러 코리아의 주력 공장이다. 한국 기계 산업의 성장,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항공기 그리고 특수기계 등 국내 성장 동력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인 초정밀 베어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KBC 브랜드로 각종 볼 베어링과 테이퍼 베어링, 워터펌프 베어링 등을 생산해 온 창원공장은 완벽한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연구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람에 대한 관심(Care for People)’에 이어 세플러가 추구하는 두 번째 가치는 ‘변화 주도(Drive the change)’이다. 변화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절대적이다.

4차 산업시대를 코앞에 두고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일자리의 80%가 사라지고 직업의 패러다임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러한 대변화의 대응책을 바로 ‘변화’에서 찾으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성공은 변화의 주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연한지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세플러도 시장의 변화에 ‘변화’로 맞서기로 했다. 기존의 생산 시스템과 품목을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변할 세플러 코리아의 생산 프로세스를 소개하기에 앞서, 현재 세플러 코리아의 창원, 전주, 안산의 모습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 JEONJU



---

세플러 코리아 전주공장은 1987년부터 볼 베어링 및 테이퍼 롤러 베어링 제품의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최초로 3세대 테이퍼 허브 유닛 베어링을 개발해 양산 중에 있다. 일반 산업용 베어링 뿐 아니라 자동차 자동 변속기용 특수 베어링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세플러 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전주공장은 우수한 생산 설비 및 검사 장비를 통해 제조에서 검사, 애프터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 세플러 성장 모멘텀 II\_ '변화 주도'

# ANSAN



---

안산공장은 INA 브랜드의 베어링 및 자동차용 엔진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안산공장은 독일의 최첨단 선진 기술 도입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 및 생산시스템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산공장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자동차용 엔진 핵심부품인 메카니컬 타펫, 유압 타펫, 캠 팔로우어, 엔진 벨트 시스템, 엔진 타이밍 체인 시스템을 공급하는 엔진 부품 전문 제조공장이며, 트랜스미션 및 샤시 분야의 주요 부품인 고품질 니들 롤러 베어링을 자동차 산업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



# SCHAEFFLER world



세플러 코리아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창원, 전주, 안산에 5개 공장과 연구소 2개, 3개의 물류 센터, 국내 3개 지점에서 약 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세플러 코리아는 세플러 그룹의 아시아의 허브로, 65년간 다져진 국내의 기술과 독일 선진 기술의 접목으로 자체 생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플러 그룹은 LuK, INA, FAG와 다수의 로컬 브랜드로 구성된 구름 베어링 및 리니어 제품 시장의 세계적인 선도 업체이자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이다. 전 세계에 170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연 매출 140억 유로, 총 직원 수 90,000여 명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이다.

앞으로 세플러 코리아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성장과 발전, 수익성을 고루 갖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세플러 그룹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온 힘을 보탤 것이다.

안전지대(Comfort Zone)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영역을 뜻한다. 안전지대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영역이다. 안전지대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안전지대에 있을 때 조직은 절차나 규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안전지대에서의 생활은 정체, 더 나아가 도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냄비 안의 개구리'라는 우화를 생각해 보자. 찬 물이 가득한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개구리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따뜻해져 오는 물을 즐기다가 급기야 죽는다는 얘기가. 즉,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지단을 알 것이다. 그는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스페인의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며 얼마 전 유럽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이룬 명감독이다. 3연패를 이룬 후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그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다고 인터뷰 했다.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는 앞으로도 우승을 해나가야 하고 변화도 필요하다. 3년 후에는 다른 아이디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내가 팀을 떠나겠다고 생각한 이유다'라는 것이다. 지단은 최전성기인 지금이 안전지대임을 인지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바로, 변화의 시기는 안전지대임을 느끼는 순간이 된다. 위기가 와 어려움이 닥쳐 변화를 요구당할 때는 이미 늦었다.

# 신뢰와 열정이 만들어 내는 변화

**'철학사전'에 의하면, 변화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함을 말한다. 즉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지금과는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작은 사물에서부터 사람을 포함 무형의 기업, 조직, 사회 등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 변화를 만들어 내는 방법

몇 년 전 회자되었던 호소문이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당신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로 시작한다. 이어서 변화를 위한 시작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무엇을 바꾸려면 모든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기업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 영역의 변화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조직 내 변화는 만들어 내기 어렵다. 즉, 변화의 시기에는 모든 영역에 걸쳐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영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과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Insanity as doing the same thing over &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라고.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의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회사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 성장 속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안전지대일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지금의 안전지대에 오기까지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경쟁 속에서 이기는 기쁨도, 때로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냄비 안의 개구리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잘 나가다가 제때에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사라진 기업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  
+  
**CHANGE**



Schaeffler에서 Leadership Essential(LE)의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Drive the Change(변화 주도)'는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개방적인 자세 함양  
(Be curious and open-minded)
2.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팀원 고취  
(Inspire your team with new ideas)
3.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긴장감 형성  
(Create a sense of urgency to initiate change)
4. 새로운 운영 원칙의 제안과 소통  
(Develop and communicate a game plan)
5. 지속적인 성과물 창출  
(Generate sustainable gains)

Schaeffler에서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동료를 믿고 새롭게 제도, 조직, 문화, 방법 등을 만들어 가며, 꾸준한 소통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우선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상하 관계가 필요하고 혹은 영역에 따라 동등한 관계도 필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형성되는 관계가 신뢰인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전체 돼야지만 올바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다음은 개인과 전체의 조화가 필요하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변화는 전체가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하품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전염성이 강한 것이 열정이다. 개인이 보여주는 열정은 전체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며 전달된다. 우리에게도 신뢰와 열정이라는 주춧돌로 너무 빠르지 않게 전체를 고려하며 시작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조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우사인 볼트'보다는 평범하지만 변화에 동의하는 열명의 Schaeffler인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마이 겐이치'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경영 컨설턴트가 한 말을 되새기고 싶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고, 둘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장 무의미한 일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심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의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어 회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  
 동물은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다. 해마다 두 번씩 이동하는 줄기러기는 인도에 여름 몬순이 덮치기 전에, 티베트에 겨울 폭풍이 닥치기 전에 귀신같이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떠난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줄기러기는 굶어죽고 만다. 이에 비하면 인간들은 변화에 둔감하다.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기 때문일까.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도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변화의 조짐들을 눈치 채는 것부터 시작해 볼 일이다. 생존을 위해.

## — 변화 앞에서 부화하거나 상하거나



### 소소한 삶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

올로가 삶의 정답처럼 회자되더니 어느새 소확행이란 단어가 유행했다. ‘웰빙’ ‘힐링’ ‘올로’ 등 뭔가 거창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유행하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외계어 같은 말. 바야흐로 소확행의 시대이다.

소확행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나오는 조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다.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겨울밤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하루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 정도의 행복이라면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이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오늘을 무조건 희생하라는 산업주의사회의 성공신화에 반기를 든 가치관이다. 그래서 4달러짜리 스타벅스 카페라떼 값을 아껴서 30년 모으면 집 한 칸은 살 수 있다며 ‘라떼효과’를 성공의 공식처럼 말하던 미국의 재정전문가에게 반문한다. 커피 한 잔도 아끼면서 살면 30년 후에는 반드시 행복해질까요?



지금 느끼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자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여파는 의외로 강력하다. 행복의 눈높이를 한껏 낮추고 나니 때 아닌 케렌시아 열풍이 불지 않는가. 스페인어인 '케렌시아(Querencia)'는 나만의 휴식공간을 뜻한다. 그런데 본래 케렌시아는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투우장의 소가 투우사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을 의미한다. 즉, 뭔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최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곳이란 뜻이다. 케렌시아 열풍이 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열된 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이 내달려야 하는 극한의 경쟁사회가 한계치까지 왔음을 의미한다.

케렌시아 열풍은 소확행과는 언뜻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아닐까. 케렌시아 열풍은 직장에서는 사무실 책상을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족을 양산하고 집에서는 홈퍼니싱족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홈퍼니싱 시장은 2015년 12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18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작고 소소한 것을 추구하는 삶조차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한방이야! 북극이든 아프리카든 떠나자'며 울로를 외치던 사람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원대한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이 길모퉁이 작은 카페에서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마시며 자족하는데 그칠까. 소확행을 뛰어넘을, 그들만의 케렌시아를 탈출할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은 그곳에서 또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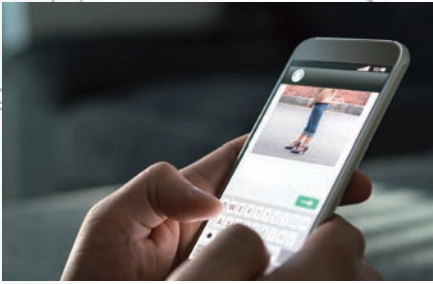
## 소확행과 동시대를 사는 미닝아웃, 확실한 변화에 꽃히다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을 추구하는 삶이 변화의 한 축이라면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축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다.

1.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쟁하듯 탈코르셋을 해시태그(#)로 단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다. 부러뜨린 립스틱, 잘려간 머리칼, 거드랑이 털을 깎지 않은 모습 사진 등 다양하다.
2. 지상파 여자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안경을 썼다. 안경 하나 쓴 것 가지고 원 호흡감이나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금기를 깬 사건이다.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두 장면에도 공통점이 있다. 화사하게 화장한 얼굴, 긴 생머리, 안경 쓰지 않은 눈, 깨끗하게 제모된 신체 등 여성에게 부과되는 외모 기준들에 반기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 #, #... SNS에 해시태그를 붙이며 커밍아웃하는 행위, 이른바 '미닝아웃

## 변화 앞에서 부화하거나 상하거나



## Meaning out

(Meaning out)이다. 자신의 주관까지 거침없이 드러내는 미닝아웃의 시대가 그저 소소한 행복이나 챙기겠다는 소확행의 시대와 동시대라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자기를 내세우는 미닝아웃 트렌드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소수의 의견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편이다. 집단주의적 색채가 강하며,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규범이나 문화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런 특성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동의어로 쓰이는 언어습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주류 규범과 다른 개인의 의견은 종종 바람직하지 않거나 잘못된, '틀린' 의견으로 평가되고 그런 의견을 가진 개인은 집단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다. 친환경 같은 보편적 가치를 넘어 남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았던 개인적 취향,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나서지 말라', 혹은 '가만히 있으라'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드러내는 태도는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대변한다. 무력한 개인이 아니라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기업이다. 자기만의 의미나 취향 또는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주로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미닝아웃에 따라 '갓기업'이 되기도 하고 '악덕기업'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발 빠른 기업들은 사회적 이슈에 적극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브랜드 가치로 키운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구글은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난민 구호 단체에 기부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변화의 조짐을 드러내는 크고 작은 표제어들은 수도룩하다. 이런 트렌디한 광풍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다. 변화를 기점으로 해피엔딩을 향해 치닫는다는 점이다. 변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도, 변하지 않고 살아남은 종도 없다.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냐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라고 하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껍질 속의 안전하고 평범한 계란인 채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계란은 부화하거나 상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변화를 거부하고 계란인 채로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16\_ Show me the 팀웍

20\_ 같이의 가치

22\_ 포토 에세이

24\_ 스페셜 에세이

26\_ 가족사진촬영기

30\_ 식사를 합시다

32\_ Power 세플러

36\_ 리더의 책장

# Mutual value

세플러 퍼플 섹션에서는 세플러인들의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동료의 업무 현장, 협력사의 동행, 세플러인의 가족 등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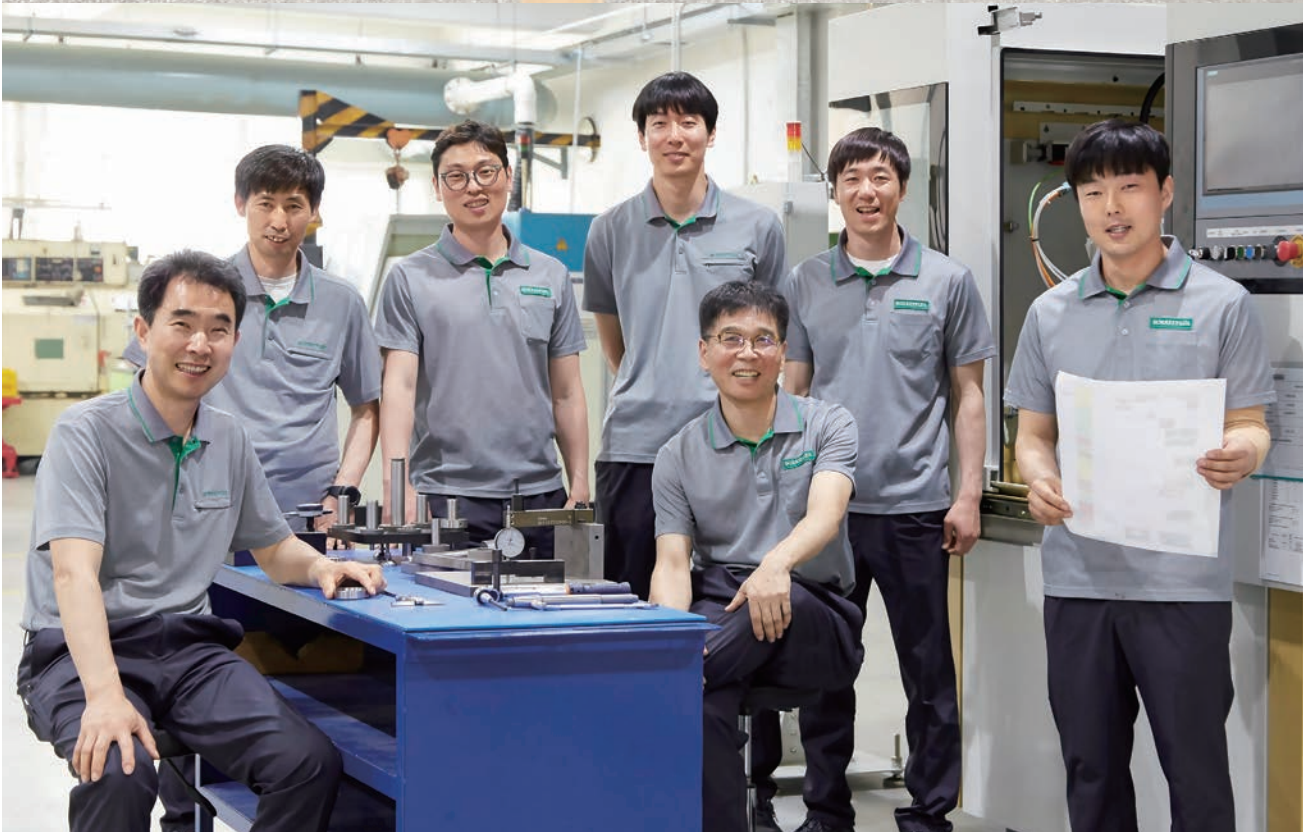
모이게 된 이유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세플러'라는 매개체로 만난 것은 모두 같습니다.

세플러를 통해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같이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모습은

세플러인들의 소통창구 <세플러 플러스 원>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테크놀로지 전용기개발팀  
—  
세플러의 기술력, 우리가 책임진다



왼쪽부터 조오수 주임, 임성천 사원, 한영호 차장, 이동혁 사원, 이군석 팀장, 손홍락 사원, 이배영 사원

전용기개발팀(SMB: Special Machinery Building)은 베어링 연삭설비, 조립설비, 측정설비를 설계, 개발, 제작, 조립하여 시운전을 통해 당사 및 그룹사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하는 팀이다. 한국을 비롯해 그룹이 생산하는 베어링이 높은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삭가공과 조립공정에 최적화된 설비를 만들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설비가 곧 세플러 코리아에서는 물론, 전 세계 세플러 그룹의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 그룹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세플러 코리아 전용기개발팀

세플러 코리아의 수많은 생산시스템을 공급하는 팀, 전 세계 세플러 그룹사 전용기개발팀 중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팀 중 하나. 바로 세플러 코리아의 전용기개발팀이다. 전용기개발팀은 생산라인의 설비를 개발하는 부서로 세플러 그룹 중에서도 전용기개발 조직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다.

“그룹 내 전용기개발팀 중에 세플러 코리아 전용기개발팀이 1인 당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독일의 경우 매출은 크지만 인원이 많죠. 세플러 코리아 전용기개발팀이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2015년 전주공장에 3세대 휠베어링 생산라인 설비를 자체 기술로 구축했는데 세플러 그룹 공장의 생산라인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효율적인 린생산(lean production: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생산방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주공장에 석달 넘게 상주하면서 장비

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세플러 코리아는 3세대 베어링 부문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가장 보람되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DGBB와 TRB 생산라인에 세플러 Platform Production Concept인 새로운 연삭·조립설비를 개발·제작해 납품을 완료했다. 새로운 연삭기와 조립공정 덕분에 베어링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빨라지고 품질은 훨씬 좋아졌다.

이런 성과로 곧 창원공장에는 오래된 연삭 및 조립라인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New Production Concept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창원공장은 Honda, Mazda 등 신규고객을 유치해 더 바빠진 상황이다.

“특히 혼다의 경우 세플러 코리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수주를 받았어요. 신규거래를 트는 것이라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즈다도 새로운 품목을 수주한 것이라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 그룹 내 모든 생산팀이 전용기개발팀의 고객

전용기개발팀이 신규고객사 납품까지 관심을 쏟는 이유가 있다. 전용기개발팀 슬로건인 'Partner for production excellence'에서와 같이 이들이 만들어 내는 설비가 곧 우리 회사는 물론, 전 세계 세플러 그룹의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전용기개발팀의 진짜 고객은 사내에 있다. 전용기를 개발하는 업무이다 보니 세플러 그룹 내에만 설비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세플러 코리아의 생산팀이 모두 저희 팀의 고객인 셈이죠. 제품을 생산하다가 설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이 빗발칩니다. 물론 설비보전팀이 따로 있지만 아무래도 생산라인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전용기개발팀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세플러 코

리아 설비부문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는 유난히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가 많아서 팀원들 간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용기개발팀은 2개의 기계조립조, 전기조, 부품수급조 등 4개 조와 기계설계파트, 전기설계파트, 부품수급파트, 조립관리파트 등 4개의 파트로 조직돼 있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조별, 파트별 업무 공유가 중요하다. 게다가 올해 초 신입사원이 5명이나 들어왔다.

“팀원들 간의 소통과 신입사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달 워크숍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인원도 늘어나고 프로젝트도 많아지면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졌거든요. 워크숍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현황과 해결해야 할 현안 등에 대해서도 각 조와 파트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세플러의 테크놀로지 전용기개발팀 기술력,

우리가 책임진다



## 납기의 신, 납기를 9% 향상 도전

최근엔 기분 좋은 일도 있었다. 사무실의 규모와 구조가 확 바뀌었다. 공간이 늘어나면서 회의실도 몇 개 더 만들었고 사무공간과 설비공간도 분리했다. 덕분에 팀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원래 협력업체에서 쓰던 공간이었는데 이전하면서 전용기개발팀의 업무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그동안 팀 공간이 좁은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한쪽에서는 기계를 조립하고 한쪽에선 가동하느라 굉장히 복잡했어요. 게다가 부품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아도 공간이 좁아서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섞이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는 부품 보관 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올해 전용기개발팀의 목표는 작년 대비 세일즈를 9%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 팀의 강점 중의 하나가 ‘납기엄수’입니



사보 촬영 후, 달달한 도너츠로 즐거운 간식시간을 가진 전용기개발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유쾌했던 촬영 덕에 머지 않아 또 한번 사보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 고객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죠. 앞으로는 SFM(Shop Floor Management: 팀 내 회의)을 통해 일정관리 등을 공유하면서 세일즈는 물론 고객이 요구하는 기존의 기한보다 더 빠른 납기로 생산설비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품 수급관리가 더욱 철저해졌다. 설비에는 수많은 종류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제때에 수급이 안 될 경우 납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열심히 문제점을 찾아내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세플러 코리아 전용기개발팀. 설비는 우수한 기술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조립자, 부품수급자 등 각 담당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들의 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팀워크가 느껴진다.



## 이군석 팀장님의 Message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노력이 지금의 전용기개발팀을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팀워크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설비전문가들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합시다!”



김지효 영양사는 전주공장 구내식당에 온 지 두 달째다. 고등학생 때, 특별한 식단으로 즐거움을 찾던 영양사 선생님을 보며 영양사의 꿈을 키웠단다. 24시 돌아가는 전주공장의 직원들을 위해 하루 4끼 550인분을 준비하는 김지효 영양사. 그녀의 식단에는 정성이 만들어낸 ‘밥심’이 녹아있다.



## 전주공장 구내식당 김지효 영양사

먹고 싶은 밥,  
건강한 밥,  
맛있는 밥



“밥심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 Q. 전주공장 직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내식당 영양사로 온 김지효라고 합니다. 영양사로 근무한 지는 3년이 되었고, 세플러 전주공장으로 온 지는 두 달이 되어갑니다. 항상 ‘먹고 싶은 밥, 맛있는 밥, 건강한 밥’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Q. 매일 몇 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시나요?

조식 90인분, 중식 270인분, 석식 100인분, 야식 90인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50인분이네요. 여기서 조식, 석식, 야식은 하나의 메뉴로 제공되고, 중식은 두 가지로 구성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Q. 업무를 보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식단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거나 그날의 입맛과 맞지 않으면 호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제철 식재료, 영양, 조리법 등 수십 가지를 고려해 식단을 구성합니다.

## Q. 식단을 구성하는 나름의 방법이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늘 배가 고플 때 식단을 짭니다. 그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서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해지죠.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여기서 컨셉은 '입맛이 다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식단'이 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빠, 야채를 좋아하는 엄마, 까다로운 초등학교 동생을 위한 다양한 메뉴까지 고르고 골라 메뉴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영양과 신선도, 맛의 조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의 식단 구성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식판에 담았을 때는 어떻게 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식단 구성을 완성합니다.



## Q. 새로운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우선 영양사 커뮤니티를 통한 영양사들과의 정보 교류가 1차적인 아이디어 장입니다. 또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진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이영자의 소떡소떡이나 백종원레시피 같은 것들을 급식에 맞게 활용하기도 하죠. 음식에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거나 인기 있는 음식들을 선보였을 때는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 Q. 업무의 특성 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고객들의 입맛을 맞추는 일입니다. 단체급식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수 고객의 기호를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됩니다.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늘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

## Q. 가장 보람 될 때는 언제인가요?

얼마 전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김치말이 국수와 메밀소바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는 때보다 호감을 보이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고심 끝에 준비한 메뉴가 잘 나와 주고, 또 그 음식을 고객들이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행복하죠.

## Q. 전주공장 구내식당을 책임질 영양사로서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식사시간이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좋은 음식과 함께 심신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셰플러 전주공장 구내식당이 몇 분 만에 끼니를 해치우는 공간이 아닌 안락한 쉼터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맛과 영양이 보장되는 양질의 식사는 물론 위생적이고 편안한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 노력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보 출연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셰플러에서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 휴가라 하면

휴가라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피서지를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박하지만 여유를 찾는 여행이 편하다. '이미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라는 광고의 카피처럼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이곳에서의 쉼이 너무나 달콤하다. 올해도 역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기다려진다.

● 안산공장



## Photo essay

## 여름밤 풍경

반포대교에서 본 서울의 야경.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분수 물줄기.  
도시의 여름밤은 이렇듯  
화려하게 지나가고 있다.

● 서울사무소



# 멈춤의 미학

공장 처마 밑,  
비를 피하다 만난 풍경이 왠지 생경하다.  
늘 당연한 듯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익숙해서  
자세히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갑자기 내린 비가 원망스러웠는데  
그 또한 이유가 있었거늘.

● 전주공장

CHAEFF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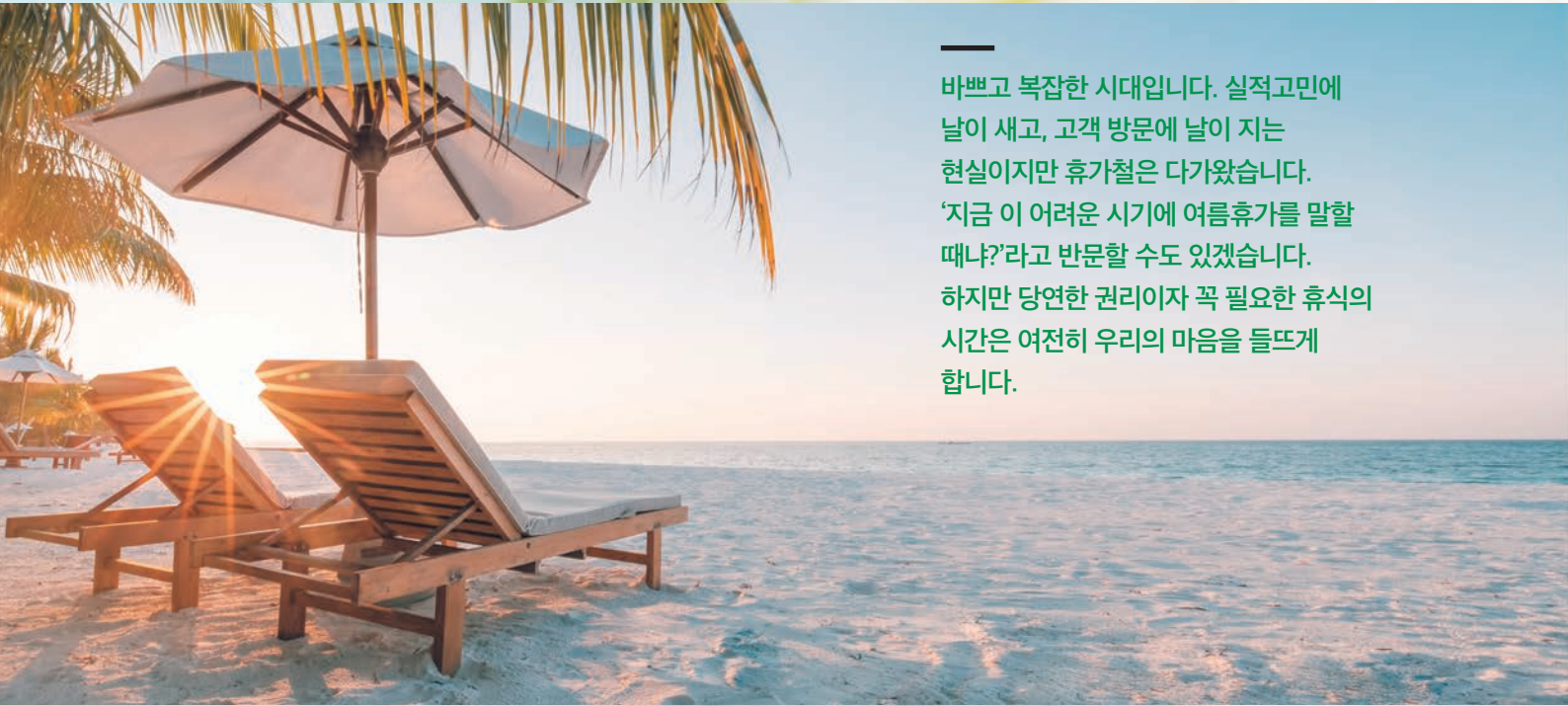
베어링의  
가



# 이열 치열

무더운 여름에도 베어링의 열처리에는  
멈춤이 없다.  
송골송골 맺히는 노동의 증거가  
이 여름을 값지게 만든다.

● 창원공장



바쁘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실적고민에 날이 새고, 고객 방문에 날이 지는 현실이지만 휴가철은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름휴가를 말할 때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권리이자 꼭 필요한 휴식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summer holiday

2006년 7월 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는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법도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을 3가지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강제성이 있는 근로 시간,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필수적인 수면·식사시간 등을 의미하는 생활시간, 그리고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흔히 각각의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의 시간은 생활시간과 자유시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을 최대화해 성장을 이끌어 온 역사였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희생이지만 강요와 상황 논리에 따른 현상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시의 모습이 발전과 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양산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시간 그리고 자유시간은 낭비하거나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근로시간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삼분된 시간의 형태는 상호영향을 미치며 질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재충전의 시간도 모두 중요하며, 그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66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을 3가지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강제성이 있는 근로시간,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필수적인 수면·식사시간 등을 의미하는 생활시간, 그리고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십시오!  
바쁘고 정신없는 요즘이지만  
당신은 당당하게 멋진 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사 직납영업 정우진 대리 가족

# 대왕암처럼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 적당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좋았던 6월의 어느 날, 정우진 대리 가족이 울산 대왕암공원을 찾았다.

유쾌한 아내 안지혜 씨, 이제 말문이 트인 22개월 재이까지.

오늘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왔단다.

유난히도 해피 바이어스가 넘쳤던 이들의 가족사진촬영기를 공개한다.



##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유명한 대왕암공원

오늘 가족사진촬영기의 무대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공원이다. 짙푸른 바다와 장관의 기암괴석이 유명한 이곳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은 후, 문무대왕을 따라 호국룡이 되어 대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울산이 고향인 지혜 씨는 대왕암공원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울산을 찾다면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곳으로 추천했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대왕암공원은 초입부터 100년이 넘는 해송이 즐비하다. 1만 5천 그루의 해송이 만든 울창한 그늘은 여름 벌에도

끄덕없다. 이 밖에도 파도가 바윗구멍을 스치면 신비한 거문고 소리를 낸다는 슬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울기등대,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캠핑장은 대왕암공원의 자랑거리다.

해송길을 따라 아장아장 걸어 나가는 재이는 씩씩하게 앞장서며 엄마 아빠를 재촉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흙' '개미' '바람' 등을 부르고 만지며 가리키는 재미가 쏠쏠한 모양이다. 그런 재이를 뒤따르는 부부도 누가 아들바라기 아니랄까봐 눈에서 하트 뽕뽕의 레이저를 발사한다.





## 대학시절 대외활동에서 만난 인연으로

정우진 대리 부부는 대학생 시절, 모 기업의 대외활동에서 만나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처음에는 같은 팀이 아니어서 친분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같은 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제가 실수로 다른 팀이었던 남편에게 잘못 보냈더라고요. 그것을 인연으로 인사를 나누고 친구로 지내다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고, 부부까지 되었어요.”(안지혜 씨)

아내 지혜 씨는 세련된 말솜씨와 유머감각에 흠려, 남편 정우진 대리는 첫눈에 훌쩍 반해 열렬히 사랑을 키웠다고.

혹자들은 사랑의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1년이라며 나름의 방식대로 계산하지만, 이들 부부의 사랑은 연애기간까지 합쳐 10년이 다 되도록 변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울산살이를 시작한지 6개월 남짓입니다. 그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제가 부산사무소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야 세 식구가 모이게 된 거죠.”(정우진 대리)

“사실, 남편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요. 본가도 서울이고, 친구들도 모두 서울에 있는데 저와 재이를 위해 선뜻 울산으로 내려와 줬거든요. 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요.”(안지혜 씨)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 여태껏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워킹맘이었던 아내가 늘 안쓰러웠다는 정우진 대리는 되레 아내 지혜 씨에게 항상 고맙다고 입을 뗀다. 사랑하는 마음도 고마운 마음도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딱 ‘천생연분’이다.

## 대왕암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기다

해송길이 끝나면 대왕암으로 향하는 해변 계단길이 나온다. 정우진 대리는 재이를 품에 안고 아내 지혜 씨도 살뜰히 챙긴다.

“자기, 조심해! 계단이 많다. 앞에 보고 잘 내려와~”(정우진 대리)

“난 괜찮아! 자기가 재이를 안고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내가 좀 안을까?”(안지혜 씨)

출렁이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계단길의 피로를 가볍게 만든다.

드디어 대왕암의 기암괴석과 울산 앞바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명당을 찾았다. 보는 눈은 다 같은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다. 조금은 아찔한 포토존이지만 정우진 대리와 지혜 씨는 인생샷을 남겨보겠다고 재이와 함께 포즈를 잡는다.

“야호~!”

“재이야~ 사랑해!”

“우리 행복하자!”

분위기를 띄우려는 정우진 대리의 파이팅 넘치는 응원에 재이도 신이 나서 살인미소를 짓는다.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그림 같은 가족의 인생샷이 완성된다.



남부지사 직남영업  
정우진 대리 가족

대왕암처럼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이가 태어난 지 22개월이 됐다. 둘만의 시간을 셋이서 나눠 써야 하고, 핸드폰 앨범에는 재이의 사진만 가득하다. 어쩌다 한 번씩 부부가 사진을 찍으려면 그렇게 어색함이 감돈다. 이제 모든 일정은 재이 중심으로 돌아간다. 재이로 인해 신경 쓸 일이 늘었고, 더 바빠졌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웃을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도 늘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가족은 제 삶의 전부가 될 만큼 소중한죠.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은 분명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꼭 해봐야 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정우진 대리)**

재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고, 삶의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간다는 정우진 대리는 자신에게 멋진 역할을 선물해 준 아내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재이를 돌보는 아내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늘 재이 앞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죠. 그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크지만 미안한 마음도 크답니다.”**

(정우진 대리)

여행을 좋아하는 지혜 씨지만 재이가 태어난 후로는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을 다녀 본 적이 없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린 재이 챙기기에 바빴으니 여행이 여행답지 못했던 것. 그런 아내를 위해 정우진 대리는 둘만의 도쿄 여행을 준비했다. 손수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며 맛집, 관광지든 모든 일정을 아내의 취향에 맞게 설계했다. 일명 ‘감동의 여행’이 될 거라며 자신감이 두둑한 정 대리의 모습에 아내 지혜 씨도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최근 들어 좌우명을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로 삼았다는 못 말리는 정 대리의 아내 사랑.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려 나가길 기대해 본다.



# 오토모티브 사업기획 서형진 대리 회계 신현아 대리 NPM 이승민 대리 중부지사 직납영업 오한울 대리

## 추천하는 맛집



정통  
뉴욕 스타일  
PIZZA

**Paulie's**



왼쪽부터 NPM 이승민 대리, 중부지사 직납영업 오한울 대리, 회계 신현아 대리, 오토모티브 사업기획 서형진 대리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2층 ☎ 02.2251.8200

서형진, 신현아, 이승민, 오한울 대리는 입사 동기다. 한두 살씩 나이 차이가 나지만 친구같이 스스럼없는 사이다. 회사 내 다양한 문제들을 나누고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이들은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폴리스를 찾는다. 이곳의 주 메뉴는 뉴욕식 피자로 미국에서 맞춤 제작한 오븐을 사용해 600도 화덕에서 구워낸다. 바삭한 도우와 신선하고 풍부한 토핑의 피자는 비교 불가한 폴리스만의 매력이다. 갖가지 재료와 소스에 따라 20여 가지의 피자를 메인으로 파스타 등의 메뉴를 선보이는 폴리스는 다양한 수제 맥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세계인의 요리 피자

피자는 넓적한 밀가루 반죽 위에 소스와 치즈, 토핑을 얹어 구운 요리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피자는 오늘날 전 세계인의 음식으로 거듭났다.

그렇다면 저 먼 이탈리아의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19세기 말, 이탈리아 남부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빵가게나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이탈리아에서 흔히 해먹던 피자를 구워 팔기 시작한다. 1905년 '롬바르디'라는 피자 전문점이 뉴욕 맨해튼에 처음 생기게 된다. 초창기 주 고객층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싸우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전역 병사들이 새로운 고객들로 가세한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피자는 미국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미국 스타일로 변하게 된다. 우선 미국인들의 기호에 맞게 피자의 크기가 커지고, 다양한 토핑이 첨가된다. 또 미국의 각 지역별로 그들만의 레시피가 탄생하는데, 이번에 소개된 Paulie's와 같은 뉴욕 피자는 피자 도우의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이며 풍부한 치즈가 특징이다. 캘리포니아 피자는 얇은 도우에 고트 치즈, 탄두리 치킨, 파인애플 등이 토핑으로 사용되고, 시카고 피자는 깊은 그릇에 도우를 맞춰 넣고 그 안을 토핑과 치즈로 채워 넣는 방식이다.

당시 레시피가 어렵지 않고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피자 전문점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남미, 그리스, 인도 등의 식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피자들이 선보이게 되고, 각국의 문화가 더해진 피자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거듭났다.





## 10·20·30·40년 장기근속자

### 릴레이 인터뷰

지난 6월 8일, 세플러 코리아는 2006년 세플러 그룹의 일원인 세플러 코리아로 출범한 지 11주년을 맞았다.(1953년 설립된 신한베어링공업을 기준으로 창립 64주년) 창립기념식에서는 10·20·30·40년 근속한 장기근속자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모범상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보에서는 그간 세플러의 성장을 이끈 장기근속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테크놀로지

### 40년 장기근속자 설비 조립 유용준



“열아홉, 선배 따라 온 이곳에서 40년을 몸담았습니다. 까까머리 시절 회사는 크고 낯설기만 했고, 선배는 높고 어렵기만 했지요. 한때는 제 잘난 줄 알고 몸담을 곳을 옮겨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그러더군요.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제2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성원과 구성원을 대하는 기업문화도 중요하다.’ 저를 흔들림 없이 잡아준 소중한 한마디였습니다.

40년의 시간 속에는 모두가 힘들어 했던 오일쇼크와 IMF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세플러인들은 되레 더 하나가 되었죠. 담당 업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 내 일같이 함께 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돕고 나눴습니다. 회사 역시 직원들의 경조사를 세심히 챙기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회사와 직원들이 진심을 나눈 만큼 세플러 코리아는 더 단단한 성장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직원의 편에서 신의를 저 버리지 않았던 회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저는 떠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후배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는 특별한 여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주공장

### 30년 장기근속자 설비보전 박영곤



“올해 저는 57세입니다. 세플러의 가족으로 산지는 30년이 되었지요. 제 인생에서 반이 넘는 시간을 세플러에서 보낸 셈입니다. 물론 30년의 모든 시간들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슬럼프도 있었고, 이직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또 연봉과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분야에서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니 쉽게 답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안으로 최고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내온 것이 벌써 30년이 된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13번의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지요. 많은 선배님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라면 새로운 환경과 업무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진리를 따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30년입니다. 다행히도 세플러에서의 제 30년은 힘들어 포기한 일보다는 즐겁게 도전해 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참으로 행복합니다.”



테크놀로지  
설비조립  
**유용준**



전주공장  
설비보전  
**박영곤**



서울사무소  
자금  
**박상건**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미애**

서울사무소

## 20년 장기근속자 자금 박상건



“독일에 처음 출장 갔던 일이 떠오르네요. 제 어릴 적 꿈이 독일에 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회사 일로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혼자 독일행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그 늦은 시간 독일을 느껴보겠다고 펍에서 맥주와 쓰시지를 먹었습니다. 빈속이라 그런지 맛은 기대 이하였죠.(웃음) 하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플러가 제게 준 고마운 추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1조 규모의 제조회사로 성장했습니다. 40년 이상의 근속자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됐건 회사의 발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또한 행복합니다. 10주년 장기근속자 표창을 받을 때, 20년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30년에는 또 어떨까? 내가 잘 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기근속자 표창은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긴장감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0주년 때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장기근속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뛰겠습니다.”

안산공장

## 10년 장기근속자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미애



“40년, 30년, 20년 근속 선배님들이 계셔서, 10년 근속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세플러인으로 지낸 10년이 행복했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입사하게 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받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다니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워킹맘이기 때문에 10년의 근속이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배려하는 회사의 다양한 복지와 동료애가 있는 사내 분위기가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히 제가 근속 노하우를 말하자면 근무 시간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따라오게 될 보상과 그 보상으로 인한 즐거운 일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 먹기라는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혹시라도 슬럼프에 빠져 힘든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님이 계시다면 그 또한 자신을 단단하게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유쾌한 출근, 즐거운 근무, 출가분한 퇴근을 즐길 것입니다. 20년, 30년을 넘어 세플러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서울사무소

김정은 NPM  
민유정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송형철 SKC Planning  
신승희 중부지사 시판영업  
이상우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BU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이지형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이태양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장후영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정현철 NPM

김지영 자금

박상건 자금

안대환 구매

원춘호 OES 영업

김성수 중부지사 해외영업

김현락 남부지사 직납영업

노승집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먼트

손기철 남부지사 직납영업

안창석 자금

윤택진 중부지사 시판영업

이상남 산업기계 사업기획



안성물류센터

이지연 안성물류



안산공장

김경미 품질보증

김영만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류택권 품질보증

서관후 생산계획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미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기홍 치공구서비스

김진엔진 콤포넌트 BU

남형재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정태기 설비보전

한덕주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전주공장**

- 박대석 업무지원
- 소창순 볼베어링 세그먼트
- 최승원 휠베어링 세그먼트
- 강인수 품질보증
- 고영완 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덕진 품질보증
- 김문석 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순남 품질보증
- 김장주 품질보증
- 김천익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 김충식 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태완 볼베어링 세그먼트
- 박영곤 설비보전
- 박종길 볼베어링 세그먼트
- 신용비 품질보증
- 양대일 휠베어링 세그먼트
- 우대봉 볼베어링 세그먼트
- 유근식 품질보증
- 이명로 품질보증
- 이용철 품질보증
- 이재석 품질보증
- 이정주 설비보전
- 임정균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 전병식 볼베어링 세그먼트
- 전세관 품질보증
- 조흥렬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최용갑 설비보전
- 최한열 볼베어링 세그먼트
- 허기선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 홍순건 볼베어링 세그먼트



**창원공장**

- 강명수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 강효진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김창남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 이정욱 공정기술 생산기술
- 고강은 설비보전
- 구임국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구춘근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김금술 선삭 세그먼트
- 김명진 업무지원 환경안전
- 김영생 단조 세그먼트
- 김우근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노경탁 NPM
- 노치문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박광수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 배근수 프로토타입 센터
- 서의성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 서헌식 베어링부품 MU
- 손종오 톨센터
- 양승욱
- 윤태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 이경형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이상길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이상범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 이선현 업무지원
- 이재인 품질보증
- 이종석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 이찬섭 품질시스템
- 전광배 업무지원
- 전동현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 정대철 단조 세그먼트
- 정원환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 조용배 품질보증
- 조정환 치공구서비스 베어링부품 MU
- 한영준 단조 세그먼트
- 한재기 선삭 세그먼트
- 황순석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 김기호 선삭 세그먼트
- 김만규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 이광휘 단조 세그먼트
- 이용순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세플러의 힘  
세플러의 자랑**

2018  
장기근속상  
수상 명단



● 총 111명(가나다 순)

**테크놀로지**

- 문재현 볼베어링 설계
- 백해연 테이퍼롤러베어링 설계
- 안희훈 해석기술
- 이인욱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 조지은 BU 휠 모듈 엔지니어링
- 김현재 BU 새시&액세서리/액츄에이터
- 도정호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 이은식 기계 설계
- 나경범 설비 조립
- 유용준 설비 조립



#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김연학 이사가 추천하는

## 〈마쓰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지혜 ①〉 〈사원의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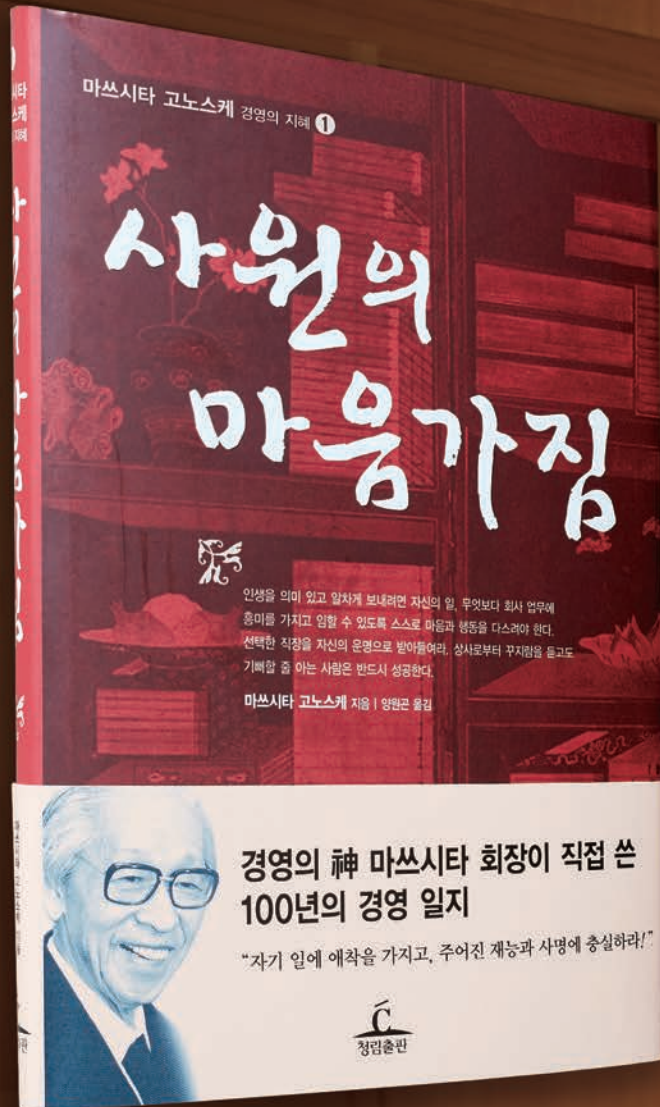
### Reasons for recommendation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의 일대기에 관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노력하면서 열심히 임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현명함이 불현듯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준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에 몰입하고, 일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것에 주력하는 것이다.’

‘사원의 마음가짐’은 그가 구순의 나이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쓴 경영 일지입니다. 신입 사원이든, 중견 사원이든, 간부 사원이든 특히 직장생활에 마음의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현실의 난관들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노력들을 해 보았지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저를 더욱 정교하고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이 책을 만나 감사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연학 이사)



## Book

### 세계적인 대기업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가 쓴 100년의 경영일지!

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꿈이 없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마쓰시다 전기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경영의 지혜> 시리즈는 지난 1989년 94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경영 일선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제1편 <사원의 마음가짐>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과 인생의 지혜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가 수십 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과 마쓰시다 전기 사원들에게 해왔던 주옥같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사원을 '신입사원, 중견사원, 간부사원'의 3부분으로 나눈 다음,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맞는 마음가짐을 소개했다. 그런 다음 2부에서는 '열린 마음의 힘'과 '충실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사명에 따라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66

안녕하세요! 사보를 통해 셰플러 가족들을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소한 것들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왠지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비밀 같은 것들이 친해지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창원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술을 마시면 O형에 가까워지는 A형이지요. 주말에는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틈틈이 나는 여유시간에는 YouTube 서핑을 즐깁니다. 역사상 최대의 종합예술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릴 적 꿈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늘 장래희망에 '과학자'라고 당당히 적어 넣었죠. 그래서 여전히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90세 쯤,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마쓰시다 고노스케와 같은 경영서적 하나를 출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겠죠.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제 좌우명인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웃음) 짧게나마 지면을 통해 만난 추억을 간직하며, 또 다른 즐거운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99



66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까지 정성을 쏟았다. 1946년에는 PHP 연구소를 창설해 풍요로운 삶을 위한 PHP(Peace, Happiness, Prosperity) 운동을 시작했으며,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자 '마쓰시타 정경숙'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도 이바지했다.



## Writer

마쓰시타 고노스케

세플러 코리아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김연학 이사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1894년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그는 1918년 마쓰시타 전기 제작소(현재의 마쓰시타 전기산업)를 설립했으며, 1973년 은퇴하기까지 '경영이란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실천했다.

그는 독특한 경영 이념과 탁월한 통찰력 및 국제 감각으로 마쓰시타 전기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내셔널(National)과 파나소닉(Panasonic) 등의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1920년대 세계공황 때는 인력을 감축하기보다 사업부제를 도입하고 주5일제를 실시하는 등 현대 기업들보다 훨씬 앞선 경영 방식을 실천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역경을 기회로 만든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손꼽힌다. 그는 그의 성공 비결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꼬마점원이 되었지만 그 덕에 어렸을 때부터 상인의 몸가짐을 익혔고, 세상의 쓴맛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남에게 일을 부탁하는 법을 배웠다. 학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이렇듯 내게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무의식 중에도 긍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길이 열렸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까지 정성을 쏟았다. 1946년에는 PHP연구소를 창설해 풍요로운 삶을 위한 PHP(Peace, Happiness, Prosperity) 운동을 시작했으며,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자 '마쓰시타 정경숙'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도 이바지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수많은 학술단체와 사회복지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그리고 1989년 9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40\_ 세플러 로드

44\_ 행복한 직장인

48\_ 문화의 숲

52\_ Schaeffler FOCUS

55\_ Schaeffler Hotline

# Let's go

직장인들이 고대하던 여름휴가가 다가왔습니다.

비워야 채우듯, 스트레스도 날려야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이번 섹션에서는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름축제 정보를 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일을 만들 줄 압니다.

여러분도 서둘러 행복낚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Fine City라고 불릴 만큼 깨끗한 환경과 동서양의 문화가 매력적인 나라 싱가포르.  
최근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알려지면서 새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화려한 도심 속에 어우러진 푸른 자연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풍부한 그곳.  
특히 이곳에는 세플러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가 있어 세플러인들에게는 친숙한 곳이다.  
그럼 지금부터 AP(Asia-Pacific)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핫플레이스를 만나보자.

세플러 그룹 AP(Asia-Pacific) 지역본부가 있는

# Singapore

—  
밤낮으로 즐거운  
핫플레이스를 만나다





싱가포르는 세플러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속해 있으며, 총 5개의 공장과 6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공장과 연구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생산과 매출 부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독일 본사와 각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아시아 태평양 차원의 전략 수립이나 연구 개발,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비즈니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밤에도  
낮에도 즐거운

## 싱가포르 핫플레이스

싱가포르의 기후는 연평균 27도로 후덥지근하다. 중국인·말레이인·인도와 파키스탄인·유럽계인 등 여러 인종이 모여 산다. 홍콩의 느낌이 물씬 나는 차이나타운과 인도인들을 위한 리틀 인디아, 웅장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숄탄모스크와 아랍 스트리트까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이공항까지는 7시간 정도가 걸린다. 시차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늦다. 중국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지만 영어만 써도 소통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여러 나라의 모습을 품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곳이지만 낯선 여행자라면 특별히 주의할 점도 있다. 바로 '벌금' 규정이다. 흡연, 무단횡단, 전철 안에서 음식 먹기, 침 뱉기, 쓰레기 버리기 등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무단횡단의 경우 1천 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에 처해지고,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 머라이언 공원

머라이언 공원은 싱가포르 남쪽 끝에 위치하는 마리나 베이에 자리한다. 이곳은 마리나 베이와 싱가포르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거리에는 고급스런 호텔과 레스토랑, 명품샵 등이 즐비하다. 밤낮 할 것 없이 물을 뿜어내는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관광객들이 북적인다.

### 마리나 베이 샌즈

머라이언 동상 건너편에 위치하는 '마리나 베이 샌즈'. 이곳은 57층 규모의 건물 3개가 범선 모양의 스카이 파크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총 2,500여 객실을 갖춘 마리나 베이 샌즈는 대형 극장과 스타급 셰프의 고급 레스토랑, 카지노, 스파 등 화려로운 부대시설로도 유명하다. 특히 투숙객만 사용할 수 있는 최상층의 아찔한 수영장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참고로 마리나 베이 샌즈 스카이 파크 전망대는 투숙객이 아니어도 입장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 가든스 더 베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정원인 이곳은 싱가포르의 꽃과 나무를 비롯해 세계 희귀식물들이 전시돼 있다. 특히 높이 25~50m의 슈퍼트리들은 흡사 영화 아바타와 같은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슈퍼트리를 연결한 공중 산책로 OCBC 스카이 웨이는 가든스 더 베이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다. 매일 저녁 두 차례씩 열리는 조명쇼 '슈퍼트리 그로브 쇼'는 싱가포르의 밤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싱가포르 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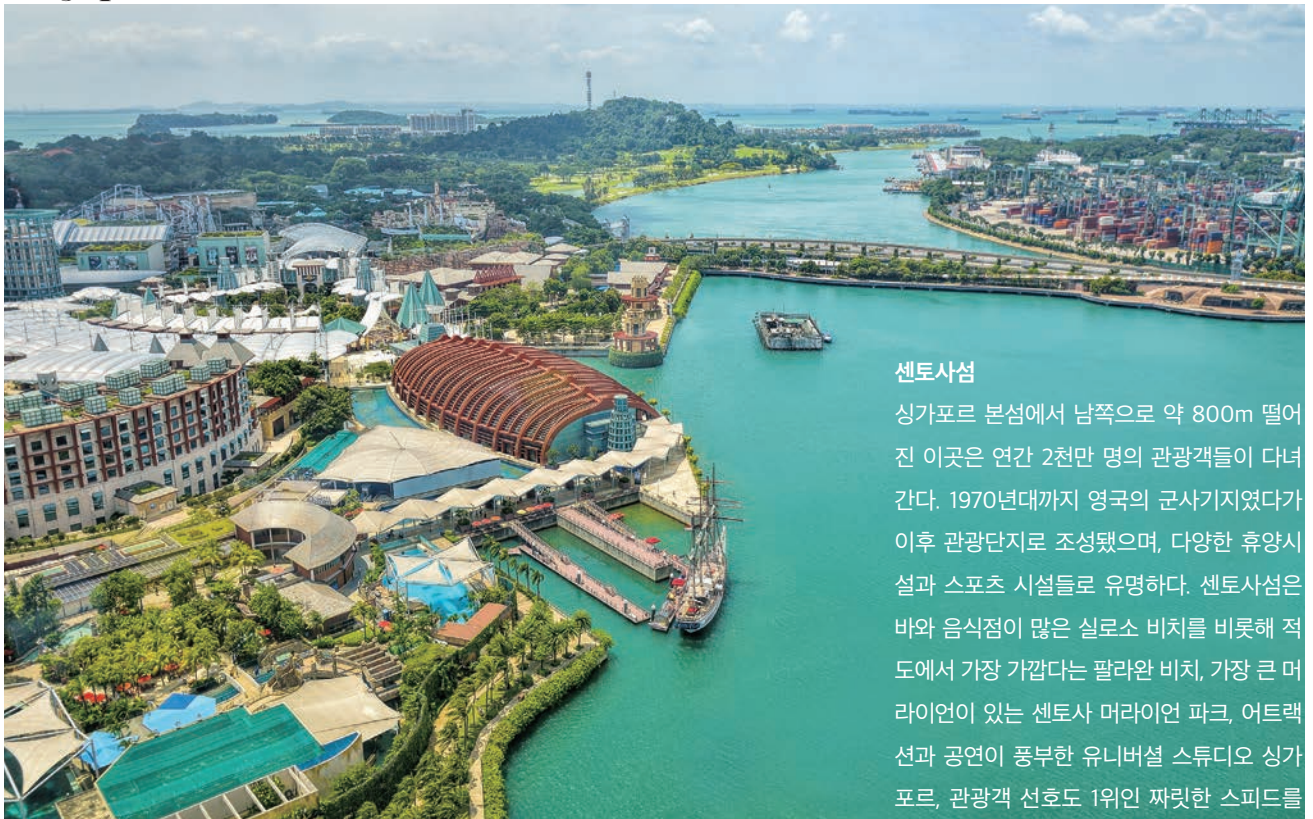
싱가포르 플레이어는 영국의 런던 아이보다 30m 더 높게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대 관람차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싱가포르의 도심은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밤에는 싱가포르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장소이기도 한다.



**클락키**

클락키는 낮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밤에는 멋진 야경과 신나는 펍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특히 배 위에서 싱가포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리버 크루즈와 싱가포르 대표음식 칠리 크랩 전문점인 점보 레스토랑도 있다.

**Singapore**



**센토사섬**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이곳은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관광단지로 조성됐으며, 다양한 휴양시설과 스포츠 시설들로 유명하다. 센토사섬은 바와 음식점이 많은 실로소 비치를 비롯해 적도에서 가장 가깝다는 팔라완 비치, 가장 큰 머라이언이 있는 센토사 머라이언 파크, 어트랙션과 공연이 풍부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관광객 선호도 1위인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루지, 싱가포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급 액티비티 메가짚까지 즐길거리가 많다. 참고로 센토사 내의 모노레일과 오렌지색 버스, 비치 트램은 무료이니 더운 날씨를 고려해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 STRESS

## 직장인 스트레스 사용설명서

도움 요청

이점 발견

워라밸



# Quiz

## 휴가 상사와의 불화 가족의 질병 임신 갑자기 생긴 돈 1억 이혼 배우자의 취직

갑자기 얻은 불로 소득으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

### 배우자의 취직

해고나 구조 조정

#### 퀴즈로 풀어보는 스트레스 지수

퀴즈를 풀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결혼, 임신, 갑자기 생긴 돈 1억, 배우자의 취직, 상사와의 불화, 이 다섯 가지에 대하여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라.”

이 퀴즈는 각 스트레스 사건마다 점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정말 그렇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스트레스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부여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지수의 기준점은 배우자의 죽음이다.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의미이고, 이 점수를 100점으로 본다. 나머지 스트레스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 73, 결혼 50, 해고나 구조 조정 47, 정년퇴직 45, 가족의 질병 44, 임신 40, 갑자기 얻은 불로 소득으로 재산이 5

천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 31, 아내의 취업이나 퇴직 26, 상사와 불화 23, 이사 20, 휴가 13 등의 순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퀴즈의 정답은 ‘결혼 50, 임신 40, 갑자기 생긴 돈 1억 31, 배우자의 취직 26, 상사와의 불화 23’ 등의 순서가 정답이다.

#### 스트레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갈증

위의 스트레스 퀴즈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포함된다. 결혼이나 승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을 느끼는 일, 즉 결혼이나 승진과 같은 일도 일종의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즉, 우리들이 보다 나은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보다 나은 삶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스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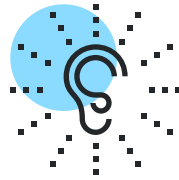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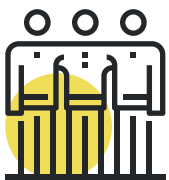
스도 없겠지만, 역으로 말해 스트레스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인간 조직생활의 필연적 요소이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갈증이라 정의한다.

그렇기에 스트레스 정도는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 전구 비유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전구를 우리 몸으로 생각하고, 전류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보자. 전구에 아주 낮은 전류를 보내면 전구의 밝기가 너무 흐려서 전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전류를 아주 강하게 보내면, 순간적으로는 매우 밝은 빛을 발휘하지 모르지만 곧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구는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전류를 보내야만,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오랫동안 주의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이다. 이 전구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다. “스트레스는 전류라는 외부자극과 전구의 내구성이라는 내적 대처능력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

## asking help

### 도움을 요청하라

외부자극이 너무 커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업무량이 너무 많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때에는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 업무조정은 반드시 상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상사와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업무조정을 시도해보자. '업무조정이 쉬운 일인가?'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바로 던지는 당신에게 나는 "상사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이 통하는 옆 부서 상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비공식적인 대화로 충분히 정보를 얻고 난 다음 상사와 대화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다.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동료와 옆 부서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 이런 지혜를 심리학에서는 '도움요청하기(asking help)'라 부른다. 외부자극이 주는 스트레스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들이 코치를 두고 도움을 받듯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잘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그러니까 심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 benefit finding

### 이점을 발견하라

도움 요청하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내적 대처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점 발견하기(benefit finding)'다. 마이애미 대학의 마이클 매컬러 연구팀의 연구를 살펴보자. 300명 이상의 대학원생들에게 감정이 크게 상했던 사건을 하나 생각해보라고 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해보라고 했다. 두 번째 집단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얻은 이점(예컨대 그 사건 때문에 더 강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거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게 했다. 실험이 끝날 무렵에 모든 학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그 결과, 몹시 속상한 경험이 가져다 준 이점에 대해 단지 몇 분 동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으며, 보복을 하거나 그 사람을 피하려는 생각은 덜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보자. 미시간 대학의 닐 크라우스 교수는 스트레스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한다. 그는 스트레스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이렇다. 스트레스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점발견으로 스트레스를 즐겨보자.



## Work-life balance

### 워라벨을 즐겨라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포함된다. 업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과제나 승진은 분명 긍정적이고 행복한 도전이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는 우리들이 보다 나은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에 생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보다 나은 삶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업무 스트레스도 없겠지만, 역으로 말해 업무 스트레스가 없으면 희망도 없는 법이다. 그렇기에 업무 스트레스도 적절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워라벨이다.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워라벨은 업무와 삶을 함께 즐기기 위한 균형을 강조한다. 가정이 화목하거나 친구 관계가 좋으면 업무 스트레스도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 역치가 낮아져 직장에서는 작은 갈등이 생겨도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성공을 위해 가정이나 친구 관계 등을 소홀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과 가정이나 친구 관계 등 모두를 다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하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지만 둘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와의 속 깊은 대화로 그날그날의 스트레스를 풀 필요가 있다. 인생 100세 시대다. 혼자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멀리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고의 휴가는 '에어컨 앞'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여름 더위가 혹독해졌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실내에서만 여름을 보내기는 뭔가 아쉽다. 그래서 준비했다! 더위를 물리칠 cool하고 sweet한 2018 썸머 페스티벌 몽땅.

# 2018

썸머 페스티벌 몽땅





**보령머드축제**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보령머드축제는 동양 유일의 패각분(조개껍데기가 부서진) 백사장으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축제의 테마는 단연 '머드'로 머드를 마음껏 즐기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머드셀프마사지부터 머드페인팅, 머드를 바르지 않은 이들을 가두어 두는 머드감옥, 머드꼬리잡기, 머드레슬링 등 신나는 체험종들로 가득하다. 특히 보령 머드는 세계 제일로 꼽히는 이스라엘 사해 머드보다도 품질이 뛰어나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해가 지면 락 페스티벌, K-POP 공연 등 다양한 야간 행사로 축제의 열기가 더해진다.

작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만 62만 2000명, 총 568만 8000명이 다녀간 보령머드축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자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 축제 기간: 7월 13(금) ~ 7월 22일(일)
- 축제 장소: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부산바다축제**

**여름은 부산에서! 축제의 바다 속으로!**

부산바다축제는 대규모 해양종합관광축제로 부산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해수욕장은 각 해수욕장만의 색깔을 담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대규모 살수시설 속에 객석 없이 진행되는 올 스탠딩 개막 파티를 시작으로 EDM 공연, 외국인 디제잉 경연대회, 서핑&보딩쇼, 해상퍼레이드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꾸며진다. 특히 야간에는 각 해수욕장 별로 화려한 불꽃쇼 및 댄스파티 등 어느 축제보다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여름철 최고의 휴가지 부산에서 펼쳐지는 부산바다축제에서 한여름 밤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자.

- 축제 기간: 8월 1(수) ~ 8월 5일(일)
- 축제 장소: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해수욕장





### 포항국제불빛축제

## 포항의 빛, 하늘을 날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포스코가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제철소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테마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맞춰 불꽃쇼를 가진 것이 시작이다. 이후 매년 휴가철에 열리면서 그 규모도 점점 확대되었고, 불꽃이라는 테마에 문화 콘텐츠가 더해져 한층 풍성한 축제로 거듭났다. 개폐막식에 펼쳐지는 불꽃 아트 서커스, 음악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데일리 뮤직 불꽃쇼, 불빛 퍼레이드 등 불빛을 테마로 한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10만여 발의 불꽃이 터지는 국제 불꽃쇼는 아름답다 못해 황홀하기까지 하다.

- 축제 기간: 7월 25(수) ~ 7월 29일(일)
- 축제 장소: 영일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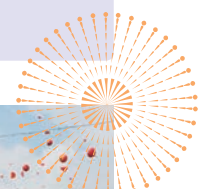


### 화천토마토축제

## 토마토로 하나 되는 세계 속의 화천

스페인에 토마티나(세계적인 토마토 축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화천토마토축제가 있다. 화천토마토축제는 맛 좋고 몸에 좋은 토마토를 마음껏 먹고, 던지고, 밟고, 바르고 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을 비롯해 토마토 주스와 파스타 파티, 토마토 저금통 만들기, 토마토 슬라이딩 수영장 등 토마토 향이 폴폴 나는 건강한 일정들이 가득하다. 특히 매년 진행되고 있는 '토마토 속 황금반지 찾기' 이벤트는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참고로 축제를 찾을 때에는 온몸이 토마토 범벅이 될 것을 예상해 부담 없는 옷이나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다.(현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축제용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 축제 기간: 8월 2(목) ~ 8월 5일(일)
- 축제 장소: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 1길 일원



대한민국

SUMMER  
FESTIVAL  
몽땅

축제명	일정	장소
양평메기수염축제	6월 2일 ~ 8월 31일	경기 양평군 수미마을 일원
포천이동갈비배큐축제	7월 13일 ~ 8월 2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249
대구치맥페스티벌	7월 18일 ~ 7월 22일	대구 두류공원 일원
태백해바라기축제	7월 20일 ~ 8월 12일	강원 태백시 구와우마을
정남진장흥물축제	7월 27일 ~ 8월 2일	전남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세계조롱박축제	7월 27일 ~ 8월 19일	충남 청양군 알프스마을 축제장 일원
제주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7월 27일 ~ 8월 2일	제주 탐동 해변공연장
홍천찰옥수수축제	7월 27일 ~ 7월 29일	강원 홍천읍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물이나 화천 쪽배축제	7월 28일 ~ 8월 5일	강원 화천군 봉어섬 일원
금강어울축제	7월 28일 ~ 7월 29일	충남 금산군 금강놀이마당 일원
강진청자축제	7월 28일 ~ 8월 3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봉화은어축제	7월 28일 ~ 8월 4일	경북 봉화군 내성천 체육공원 및 내성천 일원
영월동강축제	8월 2일 ~ 8월 5일	강원 영월군 동강둔치 일원
고창갯벌축제	8월 3일 ~ 8월 5일	전북 고창군 만들갯벌체험학습장, 하전갯벌체험장
진안고원 수박축제	8월 4일 ~ 8월 5일	전북 진안군 동향면 체련공원 외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 6일 ~ 8월 8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8-11
춘천아트페스티벌	8월 7일 ~ 8월 11일	강원 춘천시 춘천극장모퉁이, 담작은도서관
통영한산대첩축제	8월 10일 ~ 8월 14일	경남 통영시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부천국제만화축제	8월 15일 ~ 8월 19일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영상문화단지
서울프린지페스티벌	8월 15일 ~ 8월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일원
영동포도축제	8월 23일 ~ 8월 26일	충북 영동군 영동체육관 일원, 와인코리아 외
송도맥주축제	8월 24일 ~ 9월 1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8월 25일 ~ 8월 26일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춘천달갈비막국수축제	8월 28일 ~ 9월 2일	강원 춘천역 앞 일원
괴산고추축제	8월 30일 ~ 9월 2일	충남 괴산군 문화체육센터, 동진천 일원
무주반딧불축제	9월 1일 ~ 9월 9일	전북 무주군 일원(전통공예문화촌, 지남공원, 반디랜드 등)

## 중소기업 대상 '공장경영혁신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20일 전주공장서 성황리에 열려 공장 생산공정 개선 프로그램 소개 및 전주공장 내·외부 견학 진행

지난 6월 20일 세플러 코리아 전주공장에서 공장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베어링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협회 회원사이자 세플러 코리아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행사에는 협력업체 20여 곳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본부 및 영주시청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크게 공장경영혁신 프로그램 세미나와 공장 견학으로 구성됐다.

MOVE(무브)팀에서는 세플러 그룹의 대표적인 공장 생산공정 개선 프로그램인 'MOVE(무브: Mehr Ohne Verschwendung(More Without Wastes))'를 소개했으며, 이어 참가자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공장 시찰을 가졌다.



## FCA(FIAT CHRYSLER AUTOMOTIVE) 주관 Outstanding Quality Award 수상



### 지난 6월 28일 FCA 임원진 창원공장 방문 공장 생산공정 개선 프로그램 소개 및 전주공장 내·외부 견학 진행

지난 6월 28일 FCA Korea가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FCA APAC 한국사무소의 헤드인 주진철 전무와 한국/일본의 협력업체 품질을 총괄하고 있는 정영삼 이사는 세플러 코리아가 수상한 '2017 우수 품질상'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FCA에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 업체는 약 2,400개이며, 한국에 위치한 70개 공급 업체 중 세플러 코리아를 포함한 7개 공급 업체가 우수 품질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플러 코리아는 3년 연속(2015년, 2016년, 2017년) 우수 품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병찬 사장은 세플러 코리아를 우수 협력사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창원공장 라인 투어를 통해 고객사인 FCA가 당사의 설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재까지 '우수 품질상'을 4년 연속 수상한 공급 업체는 단 한 곳이다. 만약 세플러 코리아가 내년에도 이 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 서울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지난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사무소의 공간 확대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됐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전용면적으로 늘어나게 된 공용통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통로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벽 도색 진행, 회의실 내부 조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확장된 공간은 총 3,397㎡이며, 4개의 회의실과 5개의 창고 공간이 마련됐다. 이번 계기로 실내 공간이 훨씬 밝고 넓어졌으며, 그간 회의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룹의 CI 정책에 따라 로비와 내벽의 CI 및 디자인도 교체돼 세플러 그룹이 추구하는 'One Schaeffler'에 걸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한편, 리모델링 과정에서 IB를 포함해 몇몇 부문의 자리 이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산 배치되었던 오토모티브 산하 부서들이 모이게 돼 협업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됐다.

이름 | 부서 | 날짜 | 경조 내용

서울사무소

김진혁	SCM	18. 4.26	장모 회갑
김종성	협력사 매니저먼트	18. 5. 4	부친상
지두선	중부지사 시판영업	18. 5.19	자녀 결혼
이은단	SCM	18. 5.23	시모 회갑
김정훈	중부지사 해외영업	18. 5.29	부친 회갑
최진경	인사	18. 6. 6	모친 회갑
이은혜	회계	18. 6.29	부친 회갑

안산공장

이정기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18. 3.25	부친 회갑
유지완	엔진부품 세그먼트	18. 4. 5	장모 회갑
허문수	품질보증	18. 1.19	장인 칠순
김형찬	엔진부품 세그먼트	18. 4.25	장모 회갑
김명훈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18. 4.28	본인 결혼
유경호	Customer Service	18. 7. 3	부친 회갑
유 석	엔진부품 세그먼트	18. 5.12	모친 회갑
전용식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18. 6. 4	장인/장모 회갑
이정환	설비보전	18. 5.28	장인 회갑
양진환	설비보전	18. 6.29	부친 칠순
오진선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18. 6.28	부친 회갑
최종화	엔진부품 세그먼트	18. 6.20	장인 회갑

전주공장

허기선	휠베어링 세그먼트	18. 5. 16	부친상
노현철	휠베어링 세그먼트	18. 5. 1	모친상
최낙준	업무지원	18. 5.14	모친상
고범준	업무지원	18. 5. 8	부친상
심대섭	블베어링 세그먼트	18. 5.20	장인상
정희성	설비보전	18. 5.01	친조모상
송주석	공정기술	18. 6.16	본인 결혼

창원공장

정인주	단조 세그먼트	18. 4. 6	장모상
박현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4.18	장인 회갑
조광우	품질보증	18. 4.21	본인 결혼
이장호	중형블베어링 세그먼트	18. 4.22	자녀 결혼
박득수	블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4.24	자녀 출산
한동기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4.26	부친 회갑
이범주	품질보증 블베어링 MU	18. 4.28	장모 회갑

이름 | 부서 | 날짜 | 경조 내용

창원공장

임대현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4.29	장모 회갑
송성호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5. 1	모친 회갑
박득수	블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5. 2	장모 회갑
이주현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5. 4	자녀 출산
문성주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 MU	18. 5.10	조부상
이재홍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5.12	본인 결혼
최경식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 5.12	자녀 결혼
최동록	프로토타입 센터	18. 5.12	본인 결혼
현택수	툴센터	18. 5.13	자녀 결혼
김중기	생산물류	18. 5.13	장모상
이정성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5.18	부친상
조영국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 5.19	형제상
황태경	블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5.20	동생 결혼
하청호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5.20	본인 결혼
윤대식	공정기술 PMO	18. 5.22	부친 회갑
노재원	대형블베어링 세그먼트	18. 5.25	장모상
유용배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5.25	처남상
김진우	툴센터	18. 5.26	부친 회갑
백재환	선삭 세그먼트	18. 5.26	처제 결혼
신승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5.26	형제 결혼
하경준	설비보전	18. 5.30	자녀 출산
조동희	설비보전	18. 6. 5	모친상
조영준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6. 6	조모상
정상훈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18. 6. 7	장모 회갑
원창호	공정기술 생산기술	18. 6. 8	장인 회갑
유재훈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 6.10	본인 결혼
한재기	선삭 세그먼트	18. 6.10	부친상
이승열	선삭 세그먼트	18. 6.14	부친상
윤대식	공정기술 PMO	18. 6.18	모친 회갑
이정훈	사업관리	18. 6.18	부친 회갑
최형식	설비보전 블베어링 MU	18. 6.19	장모 회갑
이영민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 6.26	본인 회갑
이동현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18. 6.26	부친 회갑
노성기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18. 6.30	본인 결혼

테크놀로지

황영문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PM	18. 4. 2	부친상
하병훈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PM	18. 4.23	부친 회갑
김수연	재료기술	18. 4.13	부친 회갑
최승호	RPA & 벤치마킹	18. 5. 1	모친 회갑
배수현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PM	18. 6. 2	모친 회갑

# 2018 PHM 리더스 포럼

##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전략 및 기술 동향

2018. 7. 27(금) 15:00~19: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모시는 글

PHM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전 세계 인더스트리 4.0 기술에 대한 업계의 추진전략을 알리고, 인더스트리얼 분야의 다양한 산업체 간 기술교류를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학술단체이자 산업기계 분야 엔지니어들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점인 우리 학회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체로 구성된 회원사를 모시고 만남과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2018년도 PHM 리더스 포럼'에 참가하시어 국내·외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 개발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입수와 참가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PHM 학회장 **최주호** ● 세플러 코리아 대표이사 **이병찬**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등록	15:00 ~ 15:15	15
개회사	15:15 ~ 15:20	5 PHM 학회장 최주호
참가자 교류	15:20 ~ 15:30	10 참가자 인사, 교류진행, 학회임원과 인사
특별강연	15:30 ~ 16:30	60 인더스트리 4.0 - 세플러의 전략 인더스트리 4.0 - 독일의 기술 동향 인더스트리 4.0 - 국내의 기술 동향
질의응답	16:30 ~ 16:45	15 질의 응답
기념사진	16:45 ~ 17:00	15 기념 사진 촬영
식사	17:00 ~ 19:00	120 저녁 식사 및 종료

**참석대상** 학회 회원 및 산업기계 분야 고객사

**문의** 한국 PHM 학회 총무이사 김용수(010-8649-2872 | e-mail:kimys@kgu.ac.kr)